

예 배 순 서

이 시간 설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갈 이

2) 찬 송 ————— 1 장 ————— 다 갈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3) 기 도 ————— 대 표 자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의 근심은 떠나가고 오직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성경봉독 ————— 빌립보서 4:4-7(신약 322쪽) ————— 다 갈 이

-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5) 설 교 ————— 인 도 자

■ “ 기쁨이 넘치는 가정 ” 빌립보서 4:4-7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2026년 새
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대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기쁨
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을 넘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놀랍게도 이 편지는 감옥이라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쓰였습니다. 이는 참된 기쁨이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황이 바뀌
면 금세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원천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 가정
에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고 파도가 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환경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서로에게 ‘관용’을 베푸는 너그러운 가정입니다.

5절 말씀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
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란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
방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오히려 쉽게 상처를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만을 고집하면 기쁨은 사라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러나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가족을 위해 양보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관용을 베푼다면, 그곳에 천국의 기쁨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도 서로 다른 모습들을 인정하고 따뜻
하게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6절과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약속하십니다. 살아가
면서 염려할 일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그러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은
염려가 생길 때 그것을 기도로 바꿉니다. 걱정은 하면 할수록 태산처럼
커지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합니
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불평은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올 한 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걱정하기보다, 손을 맞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서로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며, 모든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 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이 일 년 내내 우리 집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6) 찬 송 ----- 191장 ----- 다 같 이

1.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2.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3.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4.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 후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7)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6 설명절 가 정 예 배 순 서



예 배 준 비

1.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고, 지방도 쓰지 않으며, 음식상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2. 가족들이 둘러앉고 예배 인도자는 앉거나 서서 인도합니다.
3. 본 예배 안내지의 순서에 따라 가족 중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4. 기도나 성경봉독을 가족들이 나누어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은평교회**
장 로 회

담임목사 : 김 삼 열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5길 22-20
Tel. 02)359-1189, 382-1190 Fax. 02)353-0468
www.eunpyungch.org